

부모의 학대는 아동에게 장기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후 청소년 및 성인기의 정신 건강과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 Toth, 1996). Wodarski, Kurtz, Gaudin, Howing과 Wodarski (1990)는 학대경험이 있는 집단과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교한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경험이 저조한 학업 능력, 문제 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지속적인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이어지며, 학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비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Grusec & Goodnow, 1994; Parke & Slaby, 1983). Dodge, Bate와 Pettit(1990)는 신체적 학대 경험은 또래나 성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경향이 있고,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성적 학대 경험은 공격성을 유발하고 낮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 불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의 대인관계, 사회적, 성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lger, Patterson & Kupersmith, 1998). 결국 Masten과 Coatsworth(1998)에 따르면 학대란 전쟁과 유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으로 이 같은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장기적인 부적응 행동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고도 청소년기나 성인기를 거쳐 올바르게 적응해나가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어 적응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Cicchetti, Rogosch, & Holt, 1993; Daniel, Perkins, & Kenneth, 2004; Perkins, Luster,

& Jank, 2002). 이와 같이 학대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요인을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이라 한다(Cicchetti & Toth, 1996).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대에 대한 보호요인을 기존의 정신 병리적 결함에 대한 연구에서 점차적으로 청소년의 적응적인 행동을 찾는 것으로 변화되었다(Grizenko & Fisher, 1992; Luthar, 1993; Perkins, Luster, & Jank, 2002).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잠재적인 보호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개별적 특성, 둘째는 가족의 기능, 셋째는 가족 이외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개별적 특성으로는 종교성(religiosity)과 내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를 들 수 있는데 종교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목표의식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ryfoos, 1990; Hawley & DeHaan, 1996; Perkins, Luster, & Jank, 2002; Werner, 1990). Luthar와 Zigler (1991)는 청소년의 사례에서 내적통제소재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가족 기능(family process)은 적어도 부모 중 한명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가족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Blum, Beuhring, & Rinehart, 2000).

이밖에 가족 이외 지지적인 관계의 성인(Luthar & Zigler, 1991), 긍정적인 학급 친구(Blum, McNeely, & Rinehart, 2002), 또래 집단의 특성(Blum et al., 2000; Hawkins et al., 2000), 교과 이외 활동의 참여(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2000) 등을 보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족 이외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지지적인 또래 관계를 들

고 있는데 Blum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학교생활 경험과 성인기의 긍정적인 성취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학대 경험과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학대 경험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재협, 최지현(2006)의 연구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 경험이 사회생활 활동성 위축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박덕숙(2002)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나 불안감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신성자(2001)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지지, 아동의 대인기술과 책임감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우 피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학대경험의 부정적 영향은 보호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학대 유형별 보호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피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개별적 특성 중 내적통제소재와 가족기능 및 가족 이외의 요인으로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피학대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런 학대의 부정적인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개별적 특성 중 내적통제소재와 가족기능 및 가족 이외의 요인인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대 경험과 학교생활적응간의 단순 상관을 규명하였을 뿐 학대 종류별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와 같은 세부적인 영향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제한점을 고려하여 중재변인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며, 서울 지역 4개 고등학생과 경기도 1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여 고등학생 총 785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극단치가 포함된 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78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피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으로서 17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 조사대상자 총 780명 중 380명(48%)이 학대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18.33세(SD= 7.0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83명(48.2%)으로 평균연령은 18.61세(SD=8.31)이었고, 여학생은 197명(51.8%)로 평균연령은 18.07세(SD=5.73)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피학대 척도 (CECA-Q)

Smith, Lam, Bifulco 와 Checkley(2002)의 CECA-Q(Childhood Experience of Care and Questionnaire)는 방임, 적대감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 소척도는 아버지, 어머니의 방임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는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mith 등(2002)의 연구에 발표된 기준에 따라 부, 모 각 각 합계점수가 29점, 19점 이상일 때 방임으로 분류한다. 적대감 학대는 각각에 대해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부의 적대감 학대는 합계점수가 31점 이상, 모의 적대감 학대는 27점 이상일 때 적대감 학대가 높은 것으로 분류한다.

신체적 학대는 총 19문항으로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동안 가족 중에 누구로부터 반복적으로 맞은 경험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예'로 답한 경우 신체적 학대로 분류한다. 성적학대는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예/아니오./확실하지 않아요.'를 답하도록 하여 한 가지라도 '예/ 확실하지 않아요.'로 답한 경우 성적학대자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신체적 학대는 .66, 성적학대는 .76, 모의 적대감 학대는 .83, 부의 적대감 학대는 .92, 모의 방임은 .87, 부의 방임은 .88로 나타났다.

내적통제소재 척도

Alva(1989)의 Youth Coping Scale에서 학교 영역에서의 통제감 문항 부분을 박현선(1998)이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에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 즉 자신의 과업수행, 성취여부의 귀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척도

Hernandez(1993)가 사용한 학업 관련 사회적 지지의 척도를 박현선(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사회적지지 7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지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수준을 같은 반 친구, 학교 선생님, 형제, 자매, 부모 이외 가까운 성인의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측정하여 총 28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학교적응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현경(2003)이 사용한 학교적응도 2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민병수, 1991; 이상필, 1990; 조한익, 1990)에서 사용된 질문지들 가운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학업성취도에 관한 문항들로 크게 학교에 대한 흥미(5개 문항), 학업성취도에 대한 태도(5개 문항), 학교규범 준수(10개 문항), 교사와의 관계 문항(8개 문항)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7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각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작성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학교생활적응, 방임, 적대감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내적통제소재,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학교생활적응도는

표 1. 성별에 따른 피학대 경험의 평균(표준편차)

	남	여	F
방임	49.33(9.61)	48.21(10.32)	.79
적대감 학대	40.72(10.37)	36.69(10.09)	.65
신체적 학대	.51(1.24)	.98(1.79)	30.12**
성적 학대	.21(.69)	.26(.63)	1.0
학교생활적응	68.99(8.47)	71.00(9.46)	2.46
내적통제소재	17.78(3.91)	19.05(3.08)	21.28**
사회적지지	74.58(14.41)	77.27(11.81)	8.27**

** $P < .01$.

내적통제소재, 사회적지지, 방임, 적대감 학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피학대 경험 빈도 및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방임, 적대감 학대, 성적 학대, 학교생활적응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도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피학대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에서 피학대경험이 있는 집단이 피학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7.35$ $p < .01$).

표 2.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피학대 경험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값	df
피학대 무경험	400	75.49	11.52	-7.35**	722.68
피학대 유경험	380	70.01	9.10		

** $P < .01$.

학대 경험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적 통제소재의 증재효과

학대 경험 중 방임이 학교생활적응과 상관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먼저 방임이 학교생

표 3. 방임, 내적통제소재,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B	β	R^2	R^2 Change	F Change
방임(A)	-.19	-.21**	.04		17.55**
내적통제소재(B)	.58	.23**			21.09**
A × B	-.00	-.11*	.11	.01	4.92*

* $p < .05$, ** $p < .01$.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내적통제소재가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임, 내적통제소재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에 포함되었으며, 상호작용 변인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상호작용 변인도 유의미한 예언변인에 포함되어 총 11%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방임의 설명변량에 더해 상호작용 변인이 1%의 설명변량을 추가한 바, 방임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데서 내적통제소재가 중재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내적통제소재가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대감 학대, 내적통제소재 그리고 학교생활적

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적대감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에 포함되어 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데서 내적통제소재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대 경험 중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의 경우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 변인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요인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의 중재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학대 경험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학대 경험 중 방임이 학교생활적응과 상관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방임이 학교

표 4. 적대감 학대, 내적통제소재,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B	β	R^2	R^2 Change	F Change
적대감 학대(A)	-.19	-.22**	.05		18.62**
내적통제소재(B)	.55	.22**			17.84**
A × B	-.01	.04	.09	.00	.67

* $p < .05$, ** $p < .01$.

표 5. 방임, 사회적지지,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B	β	R^2	R^2 Change	F Change
방임(A)	-.19	-.21**	.04		17.55**
사회적지지(B)	.25	.36**			54.47**
A × B	-.01	-.10*	.17	.01	4.30*

* $p < .05$, ** $p < .01$.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임, 사회적지지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에 포함되었으며, 상호작용 변인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상호작용 변인도 유의미한 예언변인에 포함되어 총 17%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방임의 설명변량에 더해 상호작용 변인이 1%의 설명변량을 추가한 바, 방임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데서 사회적지지가 중재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대

감 학대, 사회적지지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적대감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에 포함되어 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데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보호요인과 대인적 보호요인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피학대 유형별로

표 6. 적대감 학대, 사회적지지,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B	β	R^2	R^2 Change	F Change
적대감 학대(A)	-.19	-.22**	.05		18.62**
사회적지지(B)	.24	.35**			50.92**
A × B	-.00	-.08	.17	.01	2.91

* $p < .05$, ** $p < .01$.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방임, 적대감 학대, 내적통제소재,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피학대경험 유무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이 있을 때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방임이나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Brassard & Gelardo, 1987; Kline & Christiansen, 1975; Mcneil & Brassard, 198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학대가 심할수록 교사와 교우관계는 원만하지 않으며, 학교규칙을 지키지 않아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덕숙(200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머님께 매를 맞았으나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다”, “내가 잘못했을 때 맞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 경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성적학대 경험이 낮은 어휘력, 등교 거부(Trickett, McBride-Chang, 1994), 학습 장애(Livingston, 1987)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inbender 와 Friedrich(1989)는 일반 학교의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과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IQ 지수와 학업 성취도를 비교

한 연구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eyome(1993)의 연구에서 성적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과 성적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 간의 지적 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로 연구 대상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일반 학생집단의 경우 임상 집단에 비해 학대율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런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점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으로 생각하는 방임이나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또한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학대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과 보호요인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방임의 경험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내적통제소재의 중재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적통제소재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조절변인(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Luther 와 Zigler(1991)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방임의 경우 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 있어서 내적통제소재는 보호요인으로 유의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내적 통제를 하는 청소년들이 환경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응적이라는 Alva와 Padilla(199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내적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방임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학교생활적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적통제소재가 낮을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방임과는 달리 적대감 학대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내적통제소재의 중재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대감 학대의 경우 내적통제소재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으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대감 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소재의 중재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방임의 경험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조절변인(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방임의 경우 아동기 동안에 지지적인 성인이 있었을 때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Zimrin (198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적대감 학대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직접적인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대감 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박현선 (1998)의 연구에서 고위험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적대감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집단에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자기 보

고형 방식에 의한 회고적 자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성취도, 학교규범 준수, 교사와의 관계 등의 문항들로 구성된 학교생활적응은 자기 보고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Zingraff 등 (1994)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담임선생님이 학과 과목 평가점수와 출석율, 정학이나 퇴학 자료를 근거로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의 평가나 객관적인 자료(출석율, 학업성적 등)에 의한 평가가 좀 더 신뢰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학대 유형을 4가지로 규정하여 학대 유형별 보호요인을 확인하였으나 중복학대는 제외시켰다는 제한점이 있다. Margolin과 Gordis(2000)는 학대는 순수하게 어느 한 가지 유형의 학대만 경험하기 보다는 중복학대가 흔하므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학대뿐 아니라 중복학대의 영향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재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횡단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학대경험, 보호요인, 학교생활적응간의 동시적인 관계만 살펴볼 수 있을 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실제로 학대가 일어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호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재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이나 가정 환경적 특

성과 경제적 능력 및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연령층이나 실업계, 비행청소년 집단, 빈곤층 등의 환경에서는 학대경험과 보호요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기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학대의 부정적 영향이 어떤 보호요인의 영향으로 조절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학대 유형별 보호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개인 내적 자원 및 대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임상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김재협, 최지현 (2006). 여대생의 아동학대경험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2), 27-47.
- 김현경 (2003). 결손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의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덕숙 (2002). 부모의 학대유형과 불안, 공격성 및 학교적응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성자 (2001).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학교적응과 관련변수 파악. *사회과학*, 13, 227-259. 경북대학교 사회과 학대학.
- 이상필 (1990). 학교생활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1990). 학업 성취도에 따른 자아 및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 양식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va, S. A. & Padilla, A. M (1987). A contextual interaction model of academic invulnerability among Mexican American students. Los Angeles, CA: National Council of La Raza.
- Blum, R.W., Beuhring, T., & Rinehart, P. M. (2000). *Protecting teens: Beyond race, income, and family structure*. Minneapolis, MN: Center for Adolescent Health, university of Minnesota.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th, J. B. (1998). Peer relationship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 1171-1197.
- Brassard, M. R., & Gelardo, M. S. (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The unifying construct in child abuse and neglect." *school Psychology review* 16, 127-36.
- Cicchetti, D., Rogosch, L., & Holt, D.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26-647.
- Cicchetti, D., & Toth, S. L. (1996). The impact of relatedness with mother on school functioning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school*

- psychology*, 34(3), 247-266.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inbender, A. J., & Friedrich, W. N. (1989).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behavior of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155-157.
-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 Hawkins, J. D., Herrenkohl, T. I.,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Harachi, T. W., & Cothorn, L. (2000, April).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In *Juvenile Justice Bulletin*.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 283-298.
- Her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errenkohl, E. C., Herrenkohl, R. R., & Egolf, B. (1994). "Resilient early school-age children from maltreating homes: Outcomes in late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17, 404-410.
- Kline, D. F., & Christiansen, J. (1975). *Educa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abused childre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Livingston, R. (1987). Sexually and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6, 413-415.
- Luthar, S. S. (1993).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Luthar, S. S., & Zigler, E. (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6-22.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argolin, G., & Gordis, E. B. (2000). The Effect of family and community violence on childre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445-479.
-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2000). *Child maltreatment in the United Kingdom: A study of the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London: Author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547-561.
- Perkins, D. F., Luster, T., & Jank, W. (2002). Protective factors that decrease the likelihood of purging for physically abused femal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 377-400.

- Reyome, N. D. (1993). A comparison of the school performance of sexually abused,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23, 17-38.
- Smith, N., Lam, D., Bifulco, A., & Checkley, S. (2002). Childhood experience of care and questionnaire(CECA.Q).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7, 572-579.
- Trickett, P., & McBride-Chang, C. (1994). The developmental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Review*, 15, 311-337.
- Valentine, L., & Feinauer, L. L. (1993). Resilience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216-224.
- Wern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R. Meisells & J.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inter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 Zimmerman, M. A., & Arunkumar, R. (1994). Resiliency rearch: Implications for school and policy. Social Policy Report: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4), 1-17.
- Zimrin, H. A. (1986). A profile of survival. *Child Abuse & Neglect*, 10, 339-349.
- 원고접수일 : 2006. 8. 16.
게재결정일 : 2007. 1. 12.

A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bused Adolescents

Tae-Jun Lee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chool adjustments of adolescents with abuse experience of 4 types of abuse (parental neglect, parental antipathy,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explore protective factors which might alleviate negative effects for each abuse type. 785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d in Seoul and Kyoungki Province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assessing abuse experience (CECA-Q) and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380 adolescents reported that they had an abuse experience. It was demonstrated that adolescents with abuse experience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 on school life adjustment than those with no abuse experi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an interac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an interaction among parental neglect, social suppor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explained significantly school adjustment. However, the result showed that social support alone didn't moderate school life adjustment of adolescents who has abuse experienc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were shown to play a role as protective factors only in the parental neglect type among four abuse types.

Keywords : abuse,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social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